

CJ인터넷 <마구마구>, MLB 라이선스 국내 서비스 계약 체결

- ▶ 국내 온라인게임 최초로 MLB(Major League Baseball) 라이선스 획득
- ▶ 모든 선수의 데이터부터 메이저리그 구장까지 서비스 제공 예정

18승 코리언특급 LA 박찬호, 36세이브 핵잠수함 AZ 김병현, 현역 레전드 NY 알렉스 로드리게스..... 메이저리그의 별들이 <마구마구>에 온다!

CJ인터넷(대표이사 정영종)이 MLBAM(MLB Advanced Media)과 온라인 야구게임 <마구마구>에 대한 MLB 라이선스 사용과 국내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.



<사진설명 : 마구마구, MLB 라이선스 계약식>

[(좌측)애니파크 권민관 개발 총괄 이사, (중) MLBAM 해외담당 비즈니스 부서장 알렉스 피전
(우)CJ인터넷 기술개발 총괄 본부장 장래진 상무]

이번 계약으로 <마구마구>는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인 아메리칸리그(AL)와 내셔널리그(NL) 30개 팀의 공

식 유니폼과 구장은 물론 전·현직 선수들의 올스타전, 플레이오프, 월드시리즈의 공식 데이터를 게임 속에 구현하게 됐다.

특히, 박찬호와 김병현, 최희섭, 서재응 등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전성기 모습도 선보여, 보다 흥미진진하고 열띤 온라인 야구경기가 펼쳐질 전망이다.

한편, <마구마구>는 이번 계약을 기념해 27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대대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.

배리 본즈, 스즈키 이치로, 박찬호, 랜디 존슨, 블라디미르 게레로 등 쟁쟁한 MLB 스타들 중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뽑으면 추첨을 통해 32인치 LCD TV, PC와 모니터 세트, 고급 DSLR 카메라, MLB 공식 유니폼 등을 선물한다.

또한, MLB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게이머에게 MLB 선수권 아이템을 100%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.

CJ인터넷 권영식이사는 “박찬호와 배리 본즈, 이승엽과 랜디 존슨 등 꿈에서만 그리던 대결을 <마구마구>에선 실제로 펼칠 수 있게 됐다”며 “이를 계기로 국내 최고의 온라인 야구게임 <마구마구>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MLBAM의 Alex Pigeon 해외사업이사는 “우리는 한국시장에서 최초의 메이저리그 온라인게임을 CJ 인터넷과 함께 서비스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다. CJ 인터넷의 <마구마구>는 한국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온라인게임으로 알고 있다. 우리는 이번 계약으로 한국의 수많은 메이저리그 팬들에게 <마구마구>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넷마블 <마구마구> 홈페이지(<http://ma9.netmarble.net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※첨부자료

MLBAM (Major League Baseball Advanced Media, L.P.) : 인터넷, 모바일, 쌍방향 매체 등 차세대 미디어에 대한 모든 MLB 라이선스 권한을 담당하는 MLB 사무국 자회사.